

조승우와 옥주현의 환상 호흡 '스위니 토드'



아내와 딸을 빼앗기고 추방되어 복수를 꿈꾸는 이발사 역 조승우



이발사에게 연정을 품고 그를 돕는 러브부인 역 옥주현

아내와 딸을 빼앗기고 추방당한 이발사의 복수 뮤지컬

뮤지컬스타 조승우와 옥주현이 9년 만에 돌아오는 라이선스 뮤지컬 '스위니 토드'로 처음 호흡을 맞춘다.

뮤지컬제작사 오디컴퍼니에 따르면 조승우는 다른 무대 장르보다 상업적인 성격이 짙은 뮤지컬에서 전위적인 무대 언어를 선보이는 거장 스티븐 손드하임(88)의 걸작 뮤지컬 '스위니 토드'에서 타이틀롤을 연기한다.

아내와 딸을 빼앗기고 외딴 섬으로 추방당한 뒤 15년 만에 돌아온 비운의 이발사 역이다. 옥주현은 스위니 토드에게 연정을 품고 그의 복수를 돕는 파이에게 주인공 러브 부인을 연기한다.

조승우와 옥주현은 실력은 물론 티켓 파워 면에서도 톱 뮤지컬배우로 통한다. 2004년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통해 신드롬을 일으킨 조승우는 '헤드윅'을 비롯해 '베르테르', '맨오브리치' 등 출연하는 뮤지컬마다 매진 사례를 하고 있다. 뮤지컬 영역에서만 세 번의 남우주연상(2004·2008·2011)을 차지했다.

그를 '핑크' 출신 옥주현은 아이돌로서 뮤지컬배우로 자리잡은 모범시녀다. 이이다 레베카, 엘리자베트 등을 통해 역량을 과시했다. 최근 개막한 창작 뮤지컬 '미타히드' 초연에서도 타이틀롤을 맡아 호평 받고 있다.

조승우, 옥주현과 더블캐스팅된 배우들도 만만치 않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 역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과시한 양준모도 스위니 토드를 연기한다. '지킬앤하이드', '오페라의 유령', '드라클라', '영웅' 등 남자 뮤지컬 배우로서 굵직한 작품목록을 쌓아 왔다. 특히 2007년에 한국 라이선스 초연한 '스위니 토드'에 이어 다시 출연하게 됐다.

옥주현과 러브부인 역에 더블캐스팅된 전미도는 캐릭터 변신으로 주목 받고

있다. '맨오브리치' '닥터자바코' '베르테르' '월스' 등의 뮤지컬과 '베르테르' '칼매기' 등의 연극 등 장르를 넘나드는 팔색조로 통한다.

스위니 토드란 단어 모든 것을 빼앗은 욕정으로 가득한 부도덕한 관사 '터핀'은 서영주가 연기한다. 스위니 토드의 아름다운 딸로 터핀 관사에게 강제로 입양 당해 갇혀 사는 비운의 조안나로는 이지혜와 이지수가 더블캐스팅 됐다. 조안나를 보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안소니는 윤소하.

'스위니 토드'는 19세기 영국이 배경이다. 아내와 딸을 보살피는 가장이자 건실한 이발사였던 벤저민 버커가 그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터핀 관사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다. 15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친 뒤 잔인하게 복수를 행한다.

1979년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베스트 뮤지컬상을 포함한 8개 부문 토니상과 드라마 데스크상 9개 부문을 휩쓸었다. 뮤지컬뿐 아니라 오페라,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제작됐다.

한국 초연으로는 제2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최우수국뮤지컬상, 제4회 한국뮤지컬대상 시상식에서 기술상을 받았다.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에서 활약 중인 에릭 셰퍼가 연출한다.

이번 '스위니 토드' 프로덕션은 신춘수 오디뮤지컬 대표가 맡는다. '빈드' 프로듀서로 작품해석과 제작방향을 지휘한다. 이후 시즌은 '스위니토드' 한국 라이선스 초연을 제작한 뮤지컬해본의 전 대표인 박용호 에이리스트코퍼레이션 공연사업부문 리드 프로듀서가 담당한다. 6월21일부터 10월3일까지 사뮈엘 시어터 음악감독 원미술 롯데엔터테인먼트·에이리스트코퍼레이션·오디컴퍼니 /정해은 기자



1990년대 록 전성기 연

'스웨이드' 인천에 온다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2차 라인업 합류

1990년대 브리티시 록의 전성시대를 연 밴드 '스웨이드'가 제11회 201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합류했다.

페스티벌 기획사 에스컴에 따르면 스웨이드는 8월 12~1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Panta Park)에서 열리는 이 페스티벌의 2차 라인업에 포함됐다.

3년 만인 올해 초 발표한 정규 7집 '나이트 소츠(Night Thoughts)'로 또 다른 도약을 예고한 스웨이드는 역시 3년 만에 다시 찾는 펜타포트에서 건재를 과시할 예정이다.

이번 앨범의 곡들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음울하며 몽롱한 색채를 띤다. 웅장한 리듬과 큰 규모의 현악 세션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지는 '월 유 아 영'이 대표적이다. 성숙한 무대가 기대되는 이유다. 청량한 일렉트릭 팝 록의 대명사로 통하는 북아일랜드 출신 '투 도어 시네마 클럽(Two Door Cinema Club)',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신 재미동포 2세로 구성된 락 밴드 '런 리버 노스(Run River North)'도 이번 라인업에 추가됐다. 국내 팀으로는 라이브 공연에서 도드라지는 '네이브레이크', 미니멀하며 강력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밴드 '라이프 앤 타임', 2016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헤비메탈/로큰롤 상의 영예를 얻은 메탈밴드 '베서드', 신스팝 밴드 '피터팬 콤플렉스', 파워풀한 '로맨틱펀치'가 합류한다. 작년 2015 신한카드 그레이트 루키 프로젝트에서 우승한 보이즈인 더 키친 맨(MAAN), 오리엔탈 쇼커스도 함께 한다. /정해은 기자

벚꽃과 함께 즐기는 'KBS국악한마당' 정음공연

9일 오후 4시 천변 야외특설무대서 송소희·정음농악보존회 등 출연

전국에서 손꼽히는 벚꽃 명소인 정음천 벚꽃 터널을 배경으로 흥겨운 우리 가락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시에 따르면 정음시와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주관하는 벚꽃축제 및 KBS 국악한마당 정음공연이 오는 9일 토요일 오후 4시 정음천변 야외특설무대(구, 보건소 앞)에서 펼쳐진다.

무대에는 천재국악소녀로 인기 높은 송소희를 비롯 가곡/가사/시조를 노래하는 가객으로 유명한 안정아와 정가를 노래하는 지민아, 정지윤무용단과 어쿠스틱 앙상블 재비 등이 오른다. 특히 정음우도농악보존회도 출연, 흥겨운 농악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창작국악인 '신바람, 새로운 길'과 화선무(정지윤 무용단)와 경기민요(매화타령, 경북공타령 등), 장구놀이(정음우도농악보존회) 등 다채로운 우리 가락과 춤사위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국악한마당 국악공연은 대중적인 인기와 실력을 갖춘 국악소녀 송소희 등 국내 유명 국악인과 정음농악보존회를 초청, 특별히 마련한 공연"이라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아름답고 찬란한 벚꽃과 우리 국악을 한 자리에서 즐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정음=김대환기자



군산대, 동국사 문화유산 학술조사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객장근)은 오는 8월 31일까지 군산시 동국사 소장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학술 조사는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전라북도도와 군산에서 공모한 사업인 '동국사 소장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학술조사 연구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이뤄진다.

군산대학교는 이번 학술 조사를 통해 동국사에 소장된 일제강점기 문화유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목록화하고 소장 문화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향후 동국사 소장 일제강점기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자료 해제 방안을 검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북 e-sports festival 개막

오늘부터 10일까지 전주실내체육관서

전주시의 게임문화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북 e-sports festival'이 7일 4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전주실내체육관 특설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롯데 고깔론 LOL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2016' (롤챔스) 7일 정규 투어의 첫 매치인 락스 타이거즈 vs 진에어 그린위즈 그리고 콩두 몬스터 vs 삼성 갤럭시 경기를 시작으로 8일에는 아프리카 프리스 vs CI 엔투스 SK텔레콤 T1 vs 스베누 소니북 경기가 9일에는 KT 롤스터 vs 콩두, 진에어 vs 통주 게이밍 등 총 6경기가 치러진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1~4시즌 우승자 '스실호 정한솔 서렌더 김정수, 혼비 박준규, 서기 신동주'로 구성된 한국팀 vs 중국팀의 경기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팀 배틀 경기가 펼쳐진다.

전라북도도와 전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e-sports 중 최대 규모이며, 최초 지방투어로 전주에서 열린다는 점이 각별하다.

대회를 주관한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주시가 게임문화의 도시로 그리고 게임이 차세대 산업으로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흥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4월 7일>

▷쥐띠
4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니 투기는 삼가라.
60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일에 인행을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풀이 죽지 못하니 주의하라.
72년생: 큰 움직임은 삼가라.
8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띠
46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하니 주의하라.
61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에는 좋지 않으니 잘 살펴 마음을 준비하라.
73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좋은 운.
88년생: 금전운은 좋으나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주의가 필요한 운.

▷호랑이띠
50년생: 여유로운 마음으로 빠른 기다리니 하는 운이다.
62년생: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것을 잃는 운이다.
74년생: 생각지 않았던 실수로 인해 낭패가 있으니 매사에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86년생: 금과수 록이 많아진다.

▷토끼띠
51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내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63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75년생: 너무 지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않은 중용의 상태에 유지
87년생: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66년생: 정신이 맑지 않아 실수할 수 있는 운이다.
79년생: 구설수와 시비수로 마음 고생하는 운. 주변사람들에 말투에 인행 해 주어야 한다.
88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관리에 신경써야 하는 운이다.

▷범띠
53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후반에는 좋은 일이 생기니 급하게 처리하지 마라.
69년생: 여성으로서 재물을 이룬다.
77년생: 막힐이 있는 운이니,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잠깐 쉬면서 관망.
88년생: 지키지 못한 약속은 하지 마라.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말띠
54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틀어진다. 일찍 움직이고 물러서라.
68년생: 흥은 일하고 말만듣고, 나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다. 투자인 투기는 금물.
90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화해로 쉽게 풀린다.

▷양띠
56년생: 금전으로 인해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니 주의하라.
67년생: 결은 서로 웃으니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
78년생: 동기인으로 인해 신경 쓸 일들이 생기니 미리 예방하라.
91년생: 요긴 말들로 인해 마음 상할 수 있는 운.

▷원숭이띠
55년생: 외부적인 일들이 생각 외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운이다.
68년생: 동기인과 함께 움직이면 이득을 볼 수 있겠다.
80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운이다.
92년생: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불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

▷닭띠
57년생: 식욕이 따르는 운이니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69년생: 체계적인 금전관리가 필요한 운이다. 지출이 많아지니 주의하라.
81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무리할 일은 피하지 포기하라.

▷개띠
49년생: 손해볼 부를 수 있으니 사치로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58년생: 완고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따르니 주의하라.
70년생: 문서에 집착이 들었다.
82년생: 다 되었다고 생각한 일이 끝까지 풀리지 않을 수 있다.

▷돼지띠
47년생: 마음의 구름이 걷힌다.
59년생: 처음에는 틀어지나 후반에는 화합하니 급하게 서둘지 마라.
71년생: 인덕은 버리지 마라.
83년생: 급성 질환에 주의해야 하는 운. 특히 소화기 주의하라.